

최요세평



장은종

한국은행 광주전남업무팀 팀장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은행에는 화폐를 교환 하고자 찾아오는 손님이 적지 않다. 올 초 2월 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70여 명을 훌쩍 넘는 손님이 자그마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했다. 화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의 매개 수단이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화폐를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다른 화폐로 바꾸는 수요가 그렇게나 많을까'라며 다소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금거래를 하다보면 거스름돈 용도로 5만 원권이나 만원권을 액면이 낮은 천원권이나 주화로 교환할 필요가 종종 있다. 또 불에 타거나 손상되어 유통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문화적 전통 등 주요인

기존에 한국은행은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한 손님에게 대부분 새 돈으로 교환해 왔는데 올 3월부터는 새 돈 대신 '사용 가능한' 돈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한국은행이 거둬들여 수작업이나 기계를 이용해 위변

새 돈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화폐나 손상화폐를 가려낸 후 재사용 가능한 돈만을 새 돈 대신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새로운 화폐교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수개월 전부터 언론이나 안내 포스터 등을 통해 지역민들께 홍보해 왔으며 전화 문외에도 자세히 설명해드린 탓인지 지금까지 창구에서 큰 소란은 없었지만 새 돈으로 교환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한국은행을 방문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신다.

사실 동일 액면이라면 상품 등을 거래하는 데 있어 사용하던 돈에 비해 새 돈이라고 해서 1원 한 장 가치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토록 새 돈에 열광하는 걸까? 우선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해주던 관행이 지역민들의 인식 속에 굳게 자리 잡은 탓일 수 있겠다.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 새 돈을 주고받는 문화적 전통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아무래도 꼬깃꼬깃한 세뱃돈보다는 뽀뽀한 새 돈을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또 결혼예단으로 주고받는 돈을 새 돈으로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 대신 새 돈이 담긴 봉투를 전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의 우측 하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고유번호인 '기번호'라는 것이 인쇄돼 있는데 특이한 기번호나 연속되는 기번호의 지폐 묶음인 경우 간혹 비싼 가격으로 수집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때 이익이면 새 돈이어야만 가치도 높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보다는 새 돈을 받는 가운데 특정 기번호

가 선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화폐수집상들을 중심으로 새 돈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새 돈에 대한 선호가 적지 않아 크고 작은 민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왜 한국은행은 새 돈 대신 사용 가능한 돈으로 교환해 주려는지? 무엇보다 수집이나 투자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새 돈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화폐교환 본래 목적인 거래 편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화폐교환창구 혼잡으로 인한 일반 고객의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지난해 폐기된 손상 화폐를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경부고속도로를 60회 왕복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 그만큼 새 돈을 만들어내려면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간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주화 원료로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갑 속 지폐 소중히 사용

새로운 화폐교환제도가 시행된지 석 달이 지난 지금, 화폐수집 목적으로 교환창구를 반복적으로 찾는 분들을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단 화폐교환 본래 취지에 한발 다가선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자평해본다. 제도 개선에 따른 불편에도 우리 모두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신 지역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갑이나 주머니 속의 돈을 소중히 사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직관의 힘, 통찰력

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통찰능력이다. 처음 가는 골프장에서 야디지복도 없이 티업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그린은 보이지 않고 도그그레그홀로 설계돼 있다. 중간 공략지점을 어디로 설정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필이면 캐리 오너로 먼저 티업을 하게 됐다. 동반자들도 나의 코스매너지먼트를 무시하고 있다.

그동안 라운딩을 경험삼아 코스를 공략해 본다. 코스 설계가는 비기너들의 구질을 알고 있다. 슬라이스 구질기에 슬라이스홀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관은 왼쪽을 보고 티샷을 한다. 일단 바람을 측정하고 티잉그라운드에서 드라이버 샷을 한다. 다행스럽게 생각한 데로 불이 비행되었고 떨어진 지점은 세컨 샷을 하기에 좋은 지점에 안착했다. 세컨 샷도 마찬가지로. 그린의 엷다운 상태를 모르지만 세컨 샷 지점에서 타겟을 바라보니 약간 오른쪽이 높은 가 있다. 결정한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있게 공략했더니 그린에 떨어져 홀컵쪽으로 내려간다. 직관의 힘이다. 자신의 본능적인 직관을 따라 예측불허의 상황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관이 발휘됐다. 직관은 골퍼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노력의 결과이다.

코스 설계자들의 이상적인 코스설계를 공략하기 위한 방법은 상상의 공간에서 코스를 즐기는 것이다. 골프 코스는 아는 것만큼 즐길 수 있다. 인간 심리를 응축시키고 연출하는 코스 설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온 골퍼장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다.

골프라운드시 코스를 알면서도 실패할 때도 있지만 직관은 코스공략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다시 전혀 예기치 못한 코스에 직면하더라도 혼란스럽지 않고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엘프다라 밀러 카인츠는 '직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직관은 최선의 결정과 성공의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라고 말하고 있다. 골퍼들은 캐디만의 조언만을 의지하지 말고 직관의 힘을 길러야 한다. 어떤 결정상황에서 직관을 활용하기 위해 직관적 지능을 길러야 한다. 직관은 감성·이성과 구별되는 인식능력의 오성과 감정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여야 이길 수 있다. 갈등속에서 결정의 도구는 직관이다.

직관의 힘은 통찰력을 갖게 하며 결정에 대한 확신과 내적 자유를 준다. 직관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창의력과 천재성을 갖게 된다.

반려동물보다 '공동체 의식'이 우선

양육하는 사람들의 몰지각한 의식 수준이 바로 그것이다.

길거리나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들도 가끔 있을 정도다. 또한 공원 여기저기 그냥 방치돼 있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인일한 생각이

특히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 공원에서 모 연예인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인 사건도 있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라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견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려동물을 아끼는 마음 이전에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이 우선 돼야 한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물과의 반려'에 앞서 '더불어 사는 이웃'이 먼저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반도체학과 증원' 지방대 배려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를 질타한 이후 한덕수 총리가 적극 나서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학과 증원 및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해마다 반도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에서 각각 1만 명씩 균형 있게 육성하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대에서 정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방대 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조오성·윤영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대학만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위험한 발상이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윤 정부의 무개념 국정운영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부터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대 살리기와 지역 균형발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몰상식한 행태"라며 "지방대와 첨단 분야 전체가 상

생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도 "수도권 대학에만 반도체 학과 입학 정원 증원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학과 증원 및 개설을 수도권 대학에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적이다. 당연히 첨단산업과 인력 양성을 지방으로 돌려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수도권에 사람이 조금 더 몰릴 수 있지만 경북대, 부산대 등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많다. 이런 곳을 키워야 한다"며 "카이스트 지방분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영남권 대학을 예로 들었는데 광주와 전남 등에도 학과 개설이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호남 정치권의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운함을 알겠지만 새 정부가 지방대의 반도체학과 개설 및 증원을 강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무개념', '몰상식한 행태'라고 원색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다소 거북스럽다고 하겠다.

화물연대 파업, 여야정 대화로 해결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을 일주일째 이어가면서 전국 각지에서 물류 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파업으로 인해 한쪽에서는 생산품을 운송하지 못해 재고가 쌓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품을 받지 못해 재고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시멘트 출하 중단 여파로 시멘트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레미콘 공장이 멈춰 섰고, 각종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피해가 크진 않겠지만, 파업이 길어질수록 생산·유통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산업의 동맥인 물류 기능이 사실상 마비 될 상황이다.경제지표가 일제히 곤두박질치는 등 우리 경제는 시계제로 상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는 이유로 내세운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이다. 하지만 노조와 화주 측의 입장이 대립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3년(2020~2022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안전운임을 보장하지 않는 화주나 운수사업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화주·운수회사는 안전운임제가 계속되면 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한다.

해법은 국회에 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면 되는데, 국회는 원 구성도 못한 채 뒷담만 지고 있다. 화물기사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라 울화가 지니면 폐기된다.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는 1년 넘게 방치하며 사태를 키웠다. 결국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데, 여야 모두 주도권 싸움에만 매몰돼 있는 상황이다.관건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다. 윤석열 정부 첫 시험대에 오른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 조속히 해결 하길 바란다.

대구 방화참사에 담긴 위험신호

기고



송재빈

광주 남부소방서 송하119안전센터장

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대구 방화 사건은 용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리 흥기와 방화에 사용할 인화물질을 준비한 상태에서 저지른 계획 범행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부검 결과 희생자 모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방화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와 직접 싸우서는 이길 수 없다고 느낄 때 방화라는 수단을 선택한다. 지적 능력이나 체력이 필요 없고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등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방화는 '약자의 범죄'로 불린다.

방화 현장에는 연소를 촉진하는 가연성 액체인 휘발유, 시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위에서 미리 대피할 틈도 없이 빠른 속도

로 불이 번져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휘발유는 인화성이 매우 좋아서 상온에서 쉽게 증발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전국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하는 방화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위험물과 석유 판매 사업 관련법을 개정해 '인화성 액체 구매 때 신분 확인', '위험물 규격 용기사용'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실천해도 방화 사건은 지금과 달리 크게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방화참사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속 공화국', '갈등 공화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500만건 수준이던 연간 소송 건수는 현재 700만 건이 될 정도로 급증했다. 한 사회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수단인 소송에서 오히려 갈등이 극단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해결 조정보다는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사회 전반에 이해와 배려가 회복돼 갈등 공화국, 소송 공화국이란 오명이 사라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대구 방화 참사에 담긴 위험 신호를 제대로 분석해서 안전하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쳐나 가야 할 것이다.